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65> 공양이나 시주물을 독약이나 독화살처럼

원효 스님은 "배푸는데 인색하고 재물에 욕심을 내는 사람은 마구니 권속이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아들이다[慳貪於物是魔眷屬 慈悲布施是法王子]"라고 하였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널리 베풀어야 할 수행자가 시주물을 탐한다면 이는 마구니에게 틀림없다. 승복을 입고 재물을 탐하는 수행자는 공덕을 많이 뒤야 놓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칼을 갈다 닳아버린 수틀처럼 그 공덕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 뒤에 오는 과보를 어찌 할 것인가? <선가귀감> 66장에서 말한다.

故曰 修道之人 如一塊磨刀之石 張三也來磨 李四也來磨 磨來磨去 別人刀快而自家石漸消 然 有人 更嫌他人 不來我石上磨 實爲可惜.

그러므로 말하기를 "수행자는 칼을 가는 한 덩어리 수틀과 같다. 장 서방의 셋째 아들이 와서 칼을 갈고 이 서방의 넷째 아들이 와서 칼을 갈면 그들의 칼이 예리하게 잘 들췄지만 수틀은 점점 닳아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수틀에 칼을 갈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장에서는 칼을 가는 한 덩어리 수틀에 수행자를 비유하고 있다. 커다란 수틀에 이 사람이 와서 칼을 갈고 저 사람이 와서 칼을 갈음으로써 그 사람들의 칼이 잘 들췄지만, 반면에 수틀 덩어리는 점점 닳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장삼이사(張三李四)는 중국 송대(宋代)의 속어이다. 중국에서 흔한 성씨들이 '장씨네 집안의 셋째 아들[張三]'과 '이씨의 집안의 넷째 아들[李四]'이란 뜻이니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장공이공(張公李公), 장삼이사(張三李四), 갑남을녀(甲男乙女), 모갑모을(某甲某乙)이라는 말들도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여기서는 공덕을 지으려고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공부 잘하는 수행자를 복전(福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틀에 갈아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처럼, 자기에게 의복이나 음식, 재물 같은 공양물을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못마땅해 하면서 출가인의 본분에 힘쓰지 않는 수행자들이 많이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산 스님은 말한다.

如此道人 平生所向 只在溫飽.

이런 수행자가 평생 바라는 것은 오로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사는 것이니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애욕을 떨쳐낸 사람은 우리는 수행자라 하고, 세속의 삶을 조금도 그리워하지 않는 것 이를 일러 우리는 출가라고 한다[離心中愛 曰沙門 不戀世俗 曰出家]"

출가한 수행자란 이미 모든 애욕을 끊고 세속의 삶을 떠나 부처님처럼 맑

이나 이성(異性)에 대한 집착을 여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재물이나 이성을 보면 반드시 이들을 바른 생각으로 대해야 한다. 아운 스님이 이르기를 "몸을 해치는 것은 이성이 다 더한 것이 없음이요, 도를 잃게 하는 근본은 재물보다 더한 것이 없음이다[害身之機 無過女色 喪道之本 莫及貨財]"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자가 재물과 이성을 가까이 못하도록 이끄시기를 "수행자는 이성을 호랑이나 독사 보듯 해야 할 것이요, 비싼 패물은 나무나 돌처럼 여겨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재물이나 이성 때문에 세속 사람과의 인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를 닦는 마음은 더욱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스스로 세상의 즐거움을 버릴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믿고 존경하는 것이 성인과 같을 것이다. 남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수행을 해낼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존중 받는 것이 부처님과 같을 것이다. 출가한 뜻을 저버리지 않고자 하는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모든 반면부터 떨쳐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서 끝까지 실천해야 한다. 세상사람 그 누구인들 시끄러운 세상을 떠나 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을 마음이 없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욕망 가득한 세속의 삶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살이의 인연을 끊고서 늘 검소한 옷차림과 간단한 살림살이로 굶주림과 배부름에 무심하다면 도는 저절로 닦아지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세상이 저절로 완성되어 갈 것이다.

아운 스님은 계승으로 말한다.

爲他爲己 誰微善 皆是輪迴生死因 願入松風蘿月下 長觀無漏祖師禪

나와 남을 위하는 일 좋다고 해도 모든 일이 알고 보면 생사의 근원 술바람에 밝은 달빛 벗을 삼아서 맑디맑은 조사선을 닦아 가리라.

■ 원효 스님(송경사 인월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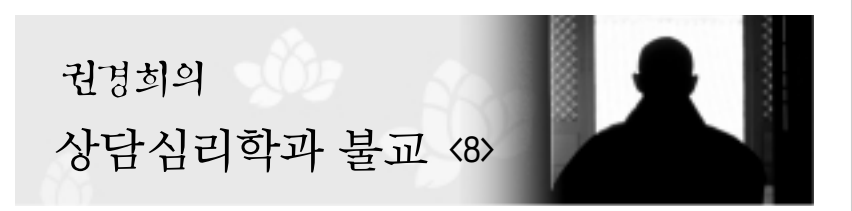
세속 인연 많아질수록 도 닦는 마음 멀어져 출가한 뜻 저버리지 말고 반면부터 떨쳐야

따 삼아서 그에게 공양하고 시주함으로써 많은 공덕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러나 수행자가 시주에 보답할 수 있는 공부를 이루어 그들에게 많은 공덕을 회향할 수 있는 부처님의 세상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수틀이 닳아서 없어지듯 그동안 스스로 쌓아놓은 공부만 잃게 되어 마침내는 부처님의 세상과 멀어지게 되고 만다.

신도들이 공덕을 지으려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야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일이지만, 공부해 놓은 것이 보잘 것 없어 더 큰 공부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수행자로서는 시인이 두터워져 마침내 그 빛에 놀리게 된다. 끝내는 도의 결심은 거두지 못하고 삼악도에 떨어져 무거운 업보를 받게 되는 것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법의 원리가 아니었던가?

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다. 수행자가 세간 사람들처럼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따뜻하게 사는 것에만 급급하여 부처님 법을 배워 어려서온 마음을 고칠 줄 모르다면 이는 아름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남의 복전이 되려 함이니 마치 날개 부러진 새가 무거운 거북이를 등에 업고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깨달음은커녕 자신의 업도 닦지 못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업장을 녹여 줄 수 있겠는가. 세상의 즐거움이 뒷날에는 괴로움인 줄 모르고 욕심내고 집착하여 업을 쌓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뜻을 입고 번뇌를 벗어나는 지름길로 접어들어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야 할 수행자가 세속의 삶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재물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8>

상담 장면

현대 상담심리학에서는 개인면접상담을 상담의 기본으로 본다. 따라서 상담의 정의나 상담에 대한 기본 이론을 설명할 때 특별히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개인 면접 상담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한다.

개인 면접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대면 관계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두 사람만의 공간이다. 다른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내담자는 안심하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래서 개인 상담실은 두 사람이 들어갈 만한 적당한 넓이를 갖

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부처님과 내담자의 만남에는 부처님의 시자(侍者)인 아난다 존자가 거의 대부분 배석하고 있었다. 불경의 첫머리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如是我聞]'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을 한 주인공이 바로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모신 아난다 존자다. 불경은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들은 설법 내용과 배경, 그 과정을 구술로 전한 것을 후세에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경전에 등장하는 사람이 부처님과 내담자 둘 뿐이었다고 해도 그 자리에는 늘 아난다

부처님은 상담 장소 등 주변 환경 신경 안 써 내담자가 많고 적고 떠나 명료하게 문제해결

추고, 다른 방에 말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을 시설을 해놓는다. 또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놓는다. 상담 도중에 상담자는 다른 방문객의 내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전화나 그 밖의 메시지도 받지 않는다. 또한 내담자에게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받지 말도록 권한다. 그때야 상담에 전념하여 상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부처님의 교화 활동을 상담으로 볼 때, 부처님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이 정형화된 상담 장면은 없었다. 상담자인 부처님과 내담자인 외도나 제자, 재가자가 부처님과 특별한 마련된 공간에서 따로 만나질 않았다.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은 어디나 상담 장소였고, 내담자 역시 주변에 별로 신

존자가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과 내담자에 아난다 존자만 배석한 것이 아니다. 어떤 때는 수십 명이 함께 있기도 했고, 수백, 수천 명이 있는 자리에서도 상담(교화)이 진행되었다. 부처님을 찾아온 내담자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별로 가리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거나 궁금한 바를 여쭙었으며, 부처님 역시 그때마다 망설이지 않고 흔쾌히 또한 명료하게 답을 해주었다.

이렇게 경전에 나타난 상담 장면은 현대의 상담 장면과 많이 다르다. 당시의 내담자들은 우리들과 달리 삶이 좀 더 답박했기 때문은 아닐까? 오늘날의 내담자들이 상담실을 찾으면서 비밀 유지를 최우선 조건으로 꼽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추량해 본다. ■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업경대(業鏡臺)

업경대는 지옥의 열라대왕(閻羅大王)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를 비추어보는 거울이다. 열라대왕업경 또는 업경륜(業鏡輪)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옥은 열라대왕이 다스리는 곳이며 육도(六道) 중 가장 고통이 심한 곳으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이 가는 곳이다.

사람이 죽어 지옥에 이르면 열라대왕은 업경대 앞에 죄인을 세우고 생전에 지은 죄를 모두 털어놓도록 한다. 업경대에는 그가 생전에 지은 선악의 행적이 그대로 나타난다. 열라대왕은 그 죄목을 일일이 두루마리에 적는다. 죄인의 공술이 끝났을 때 더 이상 업경대에 죄가 비추어지지 않으면 심문이 끝난다. 심문이 끝나면 두루마리를 저울에 달아 죄의 경중을 판가름하고, 그에 따라 가야 할 지옥이 정해진다.

<예수시왕생칠경>에는 '재행계행 더럽혀 닦과 돼지 죽인다면 업경대는 분명하여 그 죄상을 못 피해도

시왕경과 존상 모셔 지극 정성 참회하면 열라대왕 판단하여 그 죄악을 사면한다' 했다. 열라대왕의 판단과 믿음의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지장보살은 지옥의 문 앞에서 울면서 이를 지켜보다가 죄를 변호해 주기도 한다. <사분율행사초지기(四分律行事抄資持記)>는 정월·5월·9월에 업경륜이 남섬부주(南瞻浮州)를 비추는데, 선악이 모두 거울에 나타난다고 했다. <지장보살심인연시왕경(地藏菩薩心緣十王經)>은 사방팔방 업경을 닦아두어 일체 중생의 업이 마치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같이 볼 수 있다고 기록했다.

붓다의 심리학

마크 엡스타인 지 | 전현수 외 공역 | 신국판 | 304면

붓다의 가르침과 서양 심리학의 통찰의 조화로운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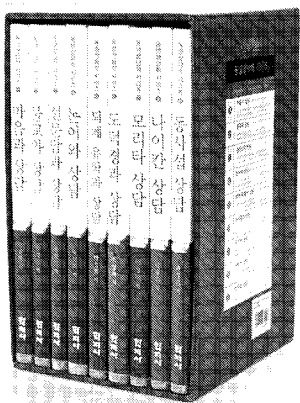
불교를 통해 정신치료를 상담의 한계를 보완해 줄 가능성을 살피고, 모든 정신은 명상적 지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서양 정신치료와 불교 명상 양쪽에서 20년간 경험한 결과입니다. <붓다의 심리학>은 치료자들에게 유용한 통찰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진전된 연구를 하게 하고, 치료자들과 명상적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상호 협력을 자극시킬 것입니다.

- 달라이 라마 추천사 -

국내 최초로 동양 상담에 주목하는

동양상담학 시리즈 ①~⑨



- ① 마음과 상담
- ② 불교와 상담
- ③ 선문답과 상담
- ④ 논어와 상담
- ⑤ 퇴계 유학파 상담
- ⑥ 도덕경과 상담
- ⑦ 모리타 상담
- ⑧ 나이칸 상담
- ⑨ 동사설 상담

박성희 지 | 4×6판 | 양장 | 각권 7,000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유한 상담의 모습을 찾는다

상담의 발생지가 서양이다 보니, 서양에서 들어온 지식을 그대로 적용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한국 사람에게 어울리는 상담 지식을 찾아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적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상담 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스며 있는 삶에 대한 철학과 사상과 문화적 전통을 뒤져 보는 고안을 하게 되었고, 이 시리즈는 이와 같은 고민의 발로이다.

학지사에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당신의 지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의학프로그램

치매예방과 뇌 장수법
장현갑 외 공역 | 신국판 | 504면

과거를 넘어 미래를 여는 NLP의 새로운 접근

시간선 치료
셀기문 지 | 신국판 | 248면

신념을 바꾸면 능력과 운명이 바뀐다
NLP 기본법칙을 통한

신념의 기적
로버트 밀츠 외 공역 | 전경숙 외 공역 | 신국판 | 328면

완전한 자기 구현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上·下
존 기벗신 지 | 장원갑 외 공역 | 신국판 | 384/352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요가수련을 소개하는 실습지침서

요가 첫걸음
조옥경 외 공역 | 국배면판 | 252면

세 살부터 어른까지, 두뇌를 깨우는 140가지 비결

두뇌개발비결
리처드 레비톤 공저 | 김중서 역 | 신국판 | 528면

상담자의 책무를 관리하고 다루는 방안

상담 및 심리치료의 기본기법
김창대 역 | 크라운판 | 352면

학지사 TEL (02)326-1500 FAX (02)324-2345